# 14년만의 ACL 무대…전남 기분 좋은 '첫승 신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

## 플라나 후반 41분 결승골
## 필리핀 UCFC에 1-0 승리
## 오늘 태국 팀과 조별리그 2차전

전남드래곤즈가 14년 만에 밟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이하 ACL) 무대에서 첫승을 신고했다.

전남이 지난 15일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나이티드시티FC(이하 UCFC·필리핀)와의 G조 예선 1차전에 후반 41분 터진 플라나의 골로 1-0으로 승리했다.

전남은 이석현, 유헤이의 빌드업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며 전반전 주도권을 쥐었다.

빌드업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낸 전남은 롱킥으로 뒷공간 돌파를 시도했지만, 유효슈팅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UCFC도 빠른 압박으로 역습을 노리며 주도권 뺏기에 나섰다. 전반 32분에는 전남의 패스를 차단한 주라보에프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김다솔이 이를 막아냈다.

전반 38분에는 박인혁의 슛이 골키퍼 손에 맞고 나왔고, 이선걸이 공을 잡아 재차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다.

전남은 후반 11분 임찬울과 이선걸을 대신해 이후권과 이규현을 투입하면서 측면을 활용한 공세에 나섰다. 전남은 측면을 반복적으로 전환하면서 상대 수비 밸런스를 흔들었다.

후반 23분에는 전경준 감독이 박인혁과 이석현을 빼고 카차라바와 박희성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후반 41분 경합과정에서 박희성이 내준 공을 플라나가 왼발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기다렸던 골을 만든 전남은 주어진 추가 4분까지 잘 막으면서 승리로 첫 경기를 마무리했다.

결승골을 장식한 플라나는 "3점을 얻게 돼 매우 행복하다. 전남의 모든 구성원이 잘 챙겨줘서 너무 행복하다. 이 클럽에 그냥 즐기러 온 것이 아니다. 팀이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우린 이곳에 여행을 온 게 아니다"며 "누군가는 우리가 한국의 2부리그 팀이라서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축구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결과를 보여줬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감독님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전남은 18일 오후 9시 같은 경기장에서 BG빠툼유나이티드FC(태국)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갖는다.

전경준 감독은 17일 진행된 사전 기자회견에서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5경기가 남아있는데 그 경기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며 "팀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떤 팀이 더 어렵다, 쉽다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 "(3일 만에 경기에 나서지만) 토너먼트 경기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쓰는 데 익숙하다.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컨디셔닝, 로테이션 등 여러 방법을 갖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2차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경기는 tvNshow 채널과 네이버스포츠,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 중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의 플라나(왼쪽)가 15일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나이티드시티FC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기세 오른 광주FC 오늘 5연승 도전

## K리그2 라이벌 안양과 대결

광주FC가 월요일밤 5연승을 달린다.

광주가 18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을 상대로 K리그2 2022 11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최고의 분위기에서 광주가 5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전남드래곤즈와의 '옐로더비'에서 주장 안영규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4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승격'이라는 목표로 가는 길은 아직 험난하다.

7승 2패(승점 21)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지난 16일 11라운드 경기를 먼저 소화한 부천FC(7승 2무 1패·승점 23)에 밀려 2위에 랭크됐다.

다시 1위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안양전 승리가 필요하다. 안양도 5승 2무 2패(승점 17)로 선두권에서 경쟁을 하는 '라이벌'이기도 하다.

광주는 매서운 공격력으로 5연승 잇기에 나선다.

10라운드 경기에서 1골에 그쳤지만 광주는 15개의 슈팅을 날리는 등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했다. 이 중 3개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와 핸드볼 반칙으로 아쉽게 2골이 '노골'이 됐다.

에이스 엄지성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으로 상대를 흔들었고, 헤이스와 허율은 연계플레이를 하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중원에선 오랜만에 자신의 자리로 올라선 박한빈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루키' 정호연은 적극적인 압박과 정확한 패스로 경기의 중심을 잡아줬다.

'왼발의 달인' 이으뜸의 활약도 뜨겁다. 안영규의 전남전 결승골을 돕는 등 이으뜸은 올 시즌 8경기에서 1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원정길에는 경고 누적으로 빠졌던 이순민도 복귀하면서 전술 옵션이 늘었다.

매서운 공격과 함께 탄탄한 수비도 광주의 질주를 이끈다.

광주 수비진은 전남과 부산을 상대로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진들을 도왔다.

안양은 올 시즌 강력한 승격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5골로 리그 득점 1위인 김경중을 비롯해 조나탄, 아코스티 등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다. 백동규와 이창용, 김동진 등으로 구성된 수비라인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안양은 지난 라운드 선두권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부천과의 맞대결에서 0-2로 패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반면 4연승에 성공한 광주는 역대전적에서도 안양에 7승 5무 5패로 우위를 보인다.

광주가 상승세를 이어 다시 선두 자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콜핑과 함께 '청소년 오지탐사대' 떠나요

## 5월 6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가 국내 토종 아웃도어 전문 기업 (주)콜핑의 후원으로 올해 다시 힘차게 출발한다.

콜핑은 대한산악연맹과 함께 세계 산악 오지를 탐사할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대원을 모집한다. 선발 대상은 세 개의 탐사대에 참여할 챌린저 18명(1997~2003년 출생자)과 드리머(고교 1~3학년 또는 이와 같은 연령대의 대한민국 남녀 청소년 누구나) 6명이다. 각 팀은 대장과 지도 위원 각 1명, 챌린저 6명, 드리머 2명으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받는다. 신청자 개인 인스타그램에 '2022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에 지원한 동기, 선발되어야 할 이유, 아웃도어 활동 경험, 팀에서 하고 싶은 역할 등을 자유롭게 적어 올리면 된다.

업로드 때는 필수 해시태그(#나는오지탐사대입니다 #콜핑 #대한산악연맹 #오지탐사대)를 첨부해야 한다. 또 업로드 후 신청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대한산악연맹 인스타그램(@kaf_1962)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발송하면 된다.

5월13일1차 선발자 발표 후 아웃도어 리더십 테스트를 거쳐 대원 24명을 선발한다. 탐사대는 7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 25일~8월 13일까지 지역별로 조를 나눠 현지 탐사, 문화 교류,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탐사에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지도위원들이 동행하여, 대원들의 안전과 탐사 활동을 지원해 준다. 탐사 지역은 코로나19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콜핑 박만영 회장은 "오지탐사대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완도군청 역도 이양재 AG 대표선발전 우승

## 손목 부상 딛고 '금빛 바벨'

완도군청 역도팀 이양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우승했다.

1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양재는 최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109kg 이상급에서 1위에 올랐다.

이양재는 인상 178kg, 용상 230kg, 합계 408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양재는 부상투혼을 발휘했다.

이양재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손목부상으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철저히 몸 관리를 해 부상없이, 더 좋은 경기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서호철 완도군청 감독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서 완도군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11월 완도에서 열리는 전국주니어 역도 경기대회 개최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 출신 신록은 이번 대회 남자61kg급에서 김용호(포천시청)에게 합계 2kg 차이로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한편, 대한역도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이번 대표선발전과 각 체급 1, 2위 선수를 대상으로 경쟁력 등을 심사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최종 14명(남녀 각각7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배드민턴 3개 종목 우승…AG 전망 밝다

## 광주코리아마스터즈 선수권

한국 배드민턴이 3년 만에 열린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3개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지난주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이어 2주 연속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서 3개 종목 금메달을 차지하며 오는 9월에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선봉장 역할은 남자 단식 국가대표 전혁진(요넥스)이 해냈다.

전혁진은 17일 광주 광주여자대학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나라오카 고다이를 2-0(21-17 21-16)으로 제압했다.

지난 2017년 대회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혁진은 5년 만에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 국가대표의 맞대결이 펼쳐진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는 도쿄 올림픽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이 후배인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유림(삼성생명)을 2-0(21-17 21-12)으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열린 남자 복식 결승전에선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기정(당진시청)-김사랑(밀양시청)이 중국의 류위천-쉬안이를 2-0(21-14 21-16)으로 완파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코리아마스터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19년 대회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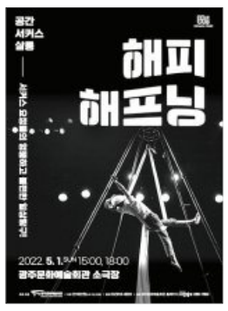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모비우스 |
| 2관 |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스텔라 |
| 3관 | 모비우스, 앰뷸런스 |
| 4관 |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
| 5관 |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스텔라 |
| 6관 |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
| 9관 |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수퍼 소닉 2, 모비우스, 그리스도 디 오리진 |
| 7관 씨네커플 | 스텔라, 말임씨를 부탁해 |
| 8관 씨네커플 | 뜨거운 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해피 해프닝
일시 : 2022.05.01.(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